

3/ 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

박철희



박철희(朴喆熙) 1963년생.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겸 일본연구소장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켈럼비아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조교수,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 미국 켈럼비아대학, 일본 게이오대학, 고베대학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에 『代議士のつくられ方』(2000),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2011), *National Identities and Bilateral Relations*(공저, 2013)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06).

1. 왜 일본 정치의 보수화를 말하는가?

일본 아베(安倍)내각 출범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의 ‘총체적인 보수화’를 우려하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우경화, 군국주의화, 군사대국화의 논조가 아베 내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¹ 일본 전체가 정치적으로 우익 성향을 가속화하는 현상으로 아베 내각의 일본을 파악한 것이다. 역으로 일본의 지식인들은 우경화라는 말에 거부감을 보인다. 거리에 나서 우익적 목소리를 높이는 세력과 일본의 정치 세력을 동일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일본 내에 양심적인 세력이 있다는 점도 호소한다.²

한국의 언론에서 논하듯, 일본 정치 세력과 사회 전체가 우익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 지식인들의 변명처럼 일본이 원천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현실적이지 않다. 적어도 2012년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래 강화되고 있는 보수화의 움직임과 증상들은 예전의 일본과 다르다.

2013년 10월 17일 야스쿠니 신사에 157명의 일본 정치인들이 참배했다. 4월 22일 신사의 춘계 예대제 때 각료 4명을 포함한 168명의 일본 정치인들이 참배를 한 데 이은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보수화의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일본 정계에서 적어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2012년까지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의 움직임과 대조적이다. 당시 민주당은 각료들이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의 기치로 헌법 개정을 다시 내세웠다. 총

1 '한국의 연합뉴스는 아베 정권의 1년을 회고하면서 「전후체제 탈피와 우경화 행보」라는 제목으로 지난 1년을 특징지었다(『연합뉴스』, 2013. 12. 13). 『한국일보』는 2013년 11월 28일 사설에서 「일본 비밀보호법 통과로 빨라지는 우경화 흐름」이라는 사설을 실었다(『한국일보』, 2013. 11. 28). 이러한 보도는 방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 『아사히신문』 와카미야 전 주필은 2013년 6월 14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열린 '일본 우경화의 실체와 한일관계'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평균적인 보통의 일본인은 우경화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3. 6. 14).

리로 집권한 이후에도 개헌을 주장하는 동시에, 개헌의 요건을 국회 재적의원 2/3에서 과반수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96조 개헌을 외쳤다. 하지만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 아베 총리는 개헌의 조속한 실현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력의 사용에 족쇄가 묶인 일본에서 위기관리 태세 확립 및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범위 확장을 위해 관저에 NSC를 설치했고, 외교·안보·방위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비밀보호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2013년 12월 17일에는 기존의 동적 방위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통합기동 방위력’이라는 적극적 방위 개념을 도입했다.³ 개헌에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일본 내부의 리버털과 혁신 세력이 줄곧 반대해 온 어젠다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 상점들이 즐비한 도쿄의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는 2012년 가을부터 재특회(在特会)에 의한 헤이트 스피치가 일상화되고 있다.⁴ 폐쇄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인종차별주의적 발언들이 쏟아지는 광경을 오랫동안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해야 했다. 재특회들은 ‘조선인들은 일본에서 나가라’, ‘조선 여자들을 강간해라’고 외치는 등 마치 관동대지진 시절 조선인들을 비난하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가히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담론들이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한류 붐을 체감할 수 있는 한일 교류의 장이었다. 이들을 비난하는 움직임들은 1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표면화되기 시작했다.⁵

일본의 한국 특파원 출신들이 한국을 비판하는 책들을 쓰고 있는 것도 예전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한국 갈등의 선진국』(韓国 葛藤の先進国)이라는 책은 비판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의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⁶

3 『朝日新聞』, 2013년 12월 18일.

4 재특회는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의 약칭이다. 재일 교포들에게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는 우익 시민단체다.

5 반한시위를 반대하는 일본 지식인 좌파와 우파의 합동단체가 만들어진 것은 2013년 9월 25일에 이르러서였다(『서울신문』, 2013. 9. 26).

6 内山清行, 『韓国 葛藤の先進国』, 東京: 日経プレミアシリーズ, 2013.

『한국 반일 감정의 정체』(韓国反日感情の正体)는 시발점에 불과했다.⁷ 『중국에 맞서는 일본, 중국에 붙어 따라가는 한국』(中国に立ち向かう日本, つき従う韓国)이라는 책이 관심을 끄는가 하면,⁸ ‘혐한론’(嫌韓論)을 넘어 ‘악한론’(惡韓論)을 펼치는 책도 출판되었다.⁹ 일본의 주간지인 『주간문춘』(週刊文春)과 석간지인 『석간후지』(夕刊フジ)는 주기적으로 한국 두들기기의 선봉에 서고 있다. 2013년 8월 29일자 『주간문춘』의 기사 제목은 한국 두들기기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¹⁰

이 같은 정치 세력의 보수화, 사회 세력의 우경화는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¹¹ 일본의 보수화란 두 가지 의미에서 상대적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일본 내 보·혁 경쟁의 공간에서 혁신 세력의 약화에 따른 보수 세력의 확장을 의미하는 동시에,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세력이 진보적인 이념을 앞세운 사회 세력의 전면에 서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전자가 정치 세력의 장이라는 측면에서의 대립 구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이념의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의 전환을 의미한다.

1955년 체제 하에서 일본은 유럽의 정당들과는 달리 우익 사회 세력은 있어도 우익 정당은 없었다. 하지만 2012년 총선을 즈음해 일본 내에서도 우익 정당이 생겨났다.¹²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 소속 의원들이 모두 우익은 아니지만, 우익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우익 정당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우익적 증상은 있지만 체제로서의 우익은 없다고

7 黒田勝弘, 『韓国反日感情の正体』, 東京: 角川, 2013.

8 鈴置高史, 『中国に立ち向かう日本, つき従う韓国』, 東京: 日経BP, 2013.

9 室谷克実, 『悪韓論』, 東京: 新潮新書, 2013.

10 2013년 8월 29일자 『주간문춘』(週刊文春)은 ‘성가신 이웃 한국을 조용히 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특집을 내고 ‘한국에 배로 갈아야 한다’며 아베 수상이 10월에 야스쿠니를 참배하라, 한국 로비를 쫓아내 버려라, 반일 아이들이 일본에서 공연하는 것을 막으라는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週刊文春』, 2013년 8월 29일(8월 21일 발매)).

11 일본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공기’(구키, 空気)라고 부른다. 바꿔 말하자면 이는 공기의 흐름처럼 순간적이거나 일시적이라는 측면을 드러내는 말이다.

12 아사히신문 후나바시(船橋) 전 주필은 한일지식인대화의 장에서 일본유신회를 예로 들면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우익 정당이 출현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2년 12월 한일문화교류기금 주최, ‘한일지식인대화’, 일본 도쿄.

할 수 있었다.¹³ 하지만 이제는 역의 논리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혁신과 리버럴(liberal)이 증상은 될 수는 있어도 일본의 체제를 장악할 수 있는 힘과 세력은 상실했다. 일본의 보수 세력과 혁신 세력 중 어느 쪽이 더 체제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냐고 한다면 이제는 일본의 보수 세력일 것이다. 즉, 일본의 우익이 체제를 장악할 수는 없지만 그 반대 세력이 일본의 중추적 세력이 될 가능성은 아주 약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점차적으로 이념적인 면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우편향화(右偏向化) 논의는 현실을 벗어난 논리는 아니다.

일본의 보수화를 논함에 있어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은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일본이 보수화하고 이념적 우파가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와 비교해서 일본의 보수 세력이 확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보수화란 일본사회 전체가 보수 일색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화란 ‘상대적’(相對的)인 개념이다. 둘째, 일본이 보수 일색으로 하나의 색깔만 가진 세력만 합법적 정당화를 인정받고 다른 다원적인 목소리가 제한되는 반민주적인 사회라는 의미도 아니다. 일본은 민주주의 사회이며 그 체제 내에서 보수적인 색채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것일 뿐, 일본사회 자체가 건강성을 상실하고 보수 일변도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 보수화가 ‘부분적’(部分的)인 것일 뿐, 총체적인 것은 아니다. 셋째, 일본의 보수화라는 흐름은 전전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일본 정치 세력 일부에서 전전(戰前)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미화하는 듯한 언행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체제(體制)로서 일본이 전전의 권위주의로 복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화는 ‘체제 내적’(體

13 게이오대학의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교수는 증상으로서의 우익은 있지만 체제로서의 우익은 있을 수 없다는 지론을 오래 펼쳐왔다. 소에야 교수는 일본이 우경화하고 있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제국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해,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제국주의 회귀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내셔널리즘이 미래에 대한 전략이 아닌 과거·현재에 대한 불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지금의 내셔널리즘엔 충분한 내용이 없다. 현실에 대한 좌절의 표출일 뿐이다. 정책 자체는 우경화하고 있지 않다. 일본 국민 또한 제국주의 회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중앙선데이』, 2013년 8월 25일에 실린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의 인터뷰).

制內的) 현상이지 체제 복고적인 것은 아니다. 넷째, 현재의 일본 하에서 우파적 이념을 가진 세력이 강해진다고 해도 이것이 역전 불가능한 불가역의 보수화도 아니다. 국제 환경 및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연동하여 현재의 보수화 논의가 다른 정치적 목소리에 의해 제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일본의 보수화는 ‘가역적’(可逆的)인 것으로 불가역적인 일방적 움직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일본의 보수화를 논하는가?

한국에서는 일본의 보수화를 보수 세력의 승리의 결과로 파악하고, 보수 세력이 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해 사회 전체의 보수화를 리드하고 있다고 파악하는 경향이 많다. 일본은 우경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대국화하여 전전의 침략적 일본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인 한국이 전전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을 파악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그러나 일본 보수화의 현실은 보수의 승리라기보다는 혁신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서 보수의 결속력과 응집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본이 다원주의적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목소리가 강하게 들리는 것은 이를 비판할 수 있는 혁신 세력의 조직력과 결속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이 전혀 우경화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시끄러운 사회 조직의 소리를 제외하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의 국가라는 주장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일본 내에서 우익 성향의 발언이 제고되고 있는 데 반해, 이에 대항하는 논리와 주장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우파 세력에 대항할 세력이 응집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해 준다. 일본의 보수 세력이 강하게 자신들의 어젠다를 조직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데 반해, 혁신 세력은 분산된 상태에서 침묵하거나 일시적으로 반발하고 있을 뿐이다. 논쟁의 정치라는 시각에서 보자면 일본의 혁신 세력은 패배주의

에 젖어 있거나 대항 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¹⁴ 일본의 보수화가 일본사회 내에서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강요된 전체주의적 논리의 수용은 아니다. 하지만 보수화하는 일본의 모습은 환상이라기보다는 현실이다.

이 논문은 일본이 삼중(三重)의 의미에서 보수화(保守化)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정당 간 역학의 측면에서 혁신 정당은 약화되고 보수 정당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보수와 혁신의 대결이라는 구도는 희석되고, 보수와 보수 내지 보수와 우익의 대결로 집약되는 정치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둘째, 정당 내부의 역학 측면에서도 집권 여당과 주요 정당 내에서 혁신적이고 리버럴한 당내 집단은 약화되고 보수적인 정치 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셋째, 일본 정계 내에서 활동적인 의원 연맹 중에서도 리버럴한 모임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보수적이거나 우익적인 성향의 의원 연맹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가 분절화되고 내부적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면, 후자의 경우 복수의 핵심 인물들에 의한 복수의 조직이 구축되고 있으며 초당적인 성격을 갖추어 가고 있다.

2. 정당 간 관계(inter-party relations)에서 본 보수화:

보수 정당의 약진

일본의 정치 변화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본 정치가 보수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특정한 연도의 개별적인 선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본의 정계가 변화하고 있다기보다는 특정 선거 시점을 계기로 대대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라는 개념이 유용할 것이다.

14 Charles Tilly & Sidney Tarrow, *Contentious Politics*, Boulder: Paradigm Publisher, 2007.

일본의 정당 체계는 1955년 이후 다양한 변화를 거쳤으나, 정당 간 경쟁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네 차례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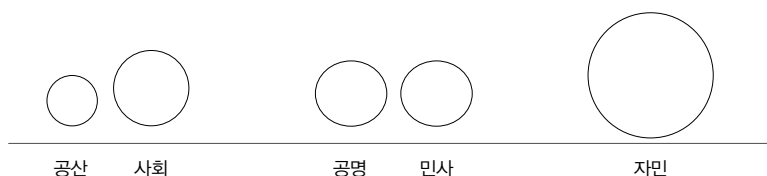
첫 번째 정계 재편은 1955년에 이루어진 일본사회당(日本社会党)의 등장과 이에 이은 보수 정당 자민당(自民党)의 결성이었다. 우파와 좌파로 나뉘었던 사회당이 결합하여 일본사회당이 되자, 자유당과 민주당으로 나뉘었던 보수 세력이 통합하면서 자민당을 만들게 되었고 이른바 1955년 체제가 출범했다. 이는 공산당이라는 소수 정당을 제외한다면, 일본에서 사실상 보수 자민당과 혁신 사회당이 대결하는 양대 정당 체제로 정계가 압축되었음을 의미했다. 또한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수와 혁신이 원심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대결 구도가 있었다. 보수의 자민당과 혁신의 사회당 및 공산당이 경합하는 정치구도였다.¹⁵



두 번째 정계 재편은 1960년 안보 투쟁의 여파로 등장했다. 사회당 우파가 분리되어 결성한 민사당(民社党)과 창가학회(創価学会)를 지지 기반으로 탄생한 공명당(公明党)이 보수와 혁신 사이의 중도 정당을 표방하면서 일본 정계는 사실상 보수와 혁신 세력의 백중 시대로 접어들었다. 야당의 분열로 인해 자민당의 우위는 지속되었지만 사실상 일본 정계는 보수 세력과 중도 및 혁신 세력 연합 간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자민당이라는 보수 정당이 정계를 주도했지만 사회당과 공산당이라는 혁신정당과 민사당과 공명당이라는 중도 정당이 자민당을 견제하는 사실상 보·혁 대결구도가 지속된 것이었다. 1950년대 후반과 같이 사회당 하나가 자민당을 상대하고 견제하는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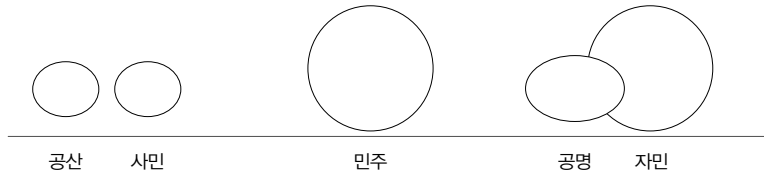
¹⁵ Gerald Curtis, *The Japanese Way of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태가 아니라 다수의 분열된 혁신 및 중도 야당이 자민당에 대해 견제 세력으로 존재하는 다수당적 보·혁 갈등 체제였다. 이 시점까지도 혁신 및 리버럴한 세력은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하나의 정당으로서는 연합했지만, 야당의 연합에 의한 견제가 자민당을 견제하는 격이어서 보수의 독주는 차단되었다.



일본 정계 재편의 세 번째 계기는 1993년 자민당의 분열로부터 촉발되었다. 자민당 내 개혁 세력을 자임하는 오자와(小沢) 중심의 보수 세력이 자기 분열을 일으켜 기존의 중도 야당이던 민사당과 공명당 세력과 연대하면서 제2의 중도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나섰다. 사회당은 일시적으로 오자와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연대하는 듯했으나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서로 길을 갈라서면서 오히려 자민당과 협력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오자와의 야당 통합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지만 일본 정당 체계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우선 중도 정당이던 민사당과 공명당이 보수 세력인 자민당 일파와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민사당은 후에 민주당이라는 중도 보수 정당에 합류하지만, 공명당은 1999년부터 자민당의 연립 여당이 되면서 보수 세력의 보완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다시 말하자면 1960년대 초반 생겨난 중도 정당들의 해체 내지는 재통합을 통해 일본 정계는 보수 세력인 자민당과 혁신 진영엔 공산당만 남긴 보수 세력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혁신의 대표 주자였던 사회당이 숙적이었던 자민당과 손을 잡으면서 사회당의 존재 의의는 점차 상실되었고, 분열이 불가피해진 사회당은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맛보아야 했다. 다시 말하자면 1990년에 들어 일본의 정계는 혁신 및 중도 세력의 몰락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재

편을 경험하게 되었다. 혁신 세력의 퇴조는 1990년대를 특징짓는 정치적 변화였다. 자민당을 제외한 보수 및 중도 세력, 타 정당 탈락 세력들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민주당(民主党)이었고, 혁신 세력을 포함했던 민주당은 출범 당시부터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03년 오자와의 자유당과 합치면서 민주당의 보수색은 더 강화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 정계가 더욱 보수화된 결정적 계기는 2012년 총선에 의해 만들어졌다. 중도 보수 정당을 표방하던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오자와 세력의 탈당이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민주당의 분열은 가속화되었다.¹⁶ 민주당의 정책 수행 능력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결집하면서 등장한 일본 유신회(日本維新の会)는 도쿄도지사였던 이시하라(石原)와 오사카시장인 하시모토(橋本)의 색채가 강하게 반영되어 우익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12년 총선에서 자민당은 294석을 얻으면서 화려한 정권 복귀를 이루어냈지만, 중도 보수 정당이었던 민주당은 분열하여 57석밖에 획득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나아가 혁신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사회당은 불과 중의원 2석을 차지하는 게 고작이었고, 공산당도 중의원 8석을 차지하면서 혁신 세력의 퇴조가 눈에 띄게 가시화되었다. 총선에 나선 12개 정당 중에서 자민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야당 대표가 전 자민당 소속이었다는 사실이 보수 세력의 확장을 증명해 준다. 자민당 출신이 대표가 아닌 정당은 공명당과 민주당, 공산당, 사회당 정도였다. 모두의 당(みんなの党)의 와타나베(渡

16 심미정, "From the Intra-Party Conflicts to Party-Switching: A Research on Ozawa's Defection from the DPJ,"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2.

辺)는 자민당에서 탈당한 정치인이었고, 일본유신회 대표인 이시하라(石原)도 전직 자민당 의원이자 자민당의 지원을 받아 도쿄도지사를 역임한 인물이었으며, 신당 미래(新党未来)도 가다(嘉田)라는 전 시가(滋賀)현지사가 이끌고 있었지만 당내 실세는 전 자민당 소속인 오자와(小沢)였다. 국민신당(国民新党) 대표인 지미(自見)나 신당 개혁(新党改革)의 마스조에(舂添)도 자민당 의원 출신이고, 신당 대지(新党大地) 대표인 스즈키(鈴木)도 자민당 정권에서 내각관방 장관까지 역임한 인물이었다. 신당 일본(新党日本)의 다나카(田中) 대표도 자민당과 가까운 인물임을 고려한다면 상당수의 야당 대표가 전직 자민당 의원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일본 정당의 광범위한 보수화를 반증해 준다. 또한 1955년 체제 하에서 야당이었던 공명당이 1999년 이래 자민당과 연합을 지속한 점은 이 정당이 보수 정당의 보완 세력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정당 간 경쟁의 역학으로 보면, 보수 정당이 혁신 정당들을 밀어내는 현상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을 보면 2012년 총선에서 보수당인 자민당이 294석으로 압승했고, 우익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54석으로 중도 보수 정당인 민주당에 견제를 가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 개의 주요 야당 중에서 민주당을 제외한다면, 전직 자민당 출신이 이끄는 일본유신회와 모두의 당이 적어도 보수라는 이념적 색채에서 자민당 편에 가깝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비록 분열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보수 정당들이 혁신 정당은 물론 중도 정당까지 밀어내면서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약해 보자면 1955년 체제의 초기인 1950년대에는 자민당과 사회당이 중심이 되는 보·혁 대결이 정당 간 경쟁의 기초를 이루었다면, 1960년

〈표 1〉 2012 총선 후 각 정당별 의석 수

	소선거구	비례대표	의석 합계	선거 이전
자민당	237	57	294	118
민주당	27	30	57	230
일본유신회	14	40	54	11
공명당	9	22	31	21
모두의 당	4	14	18	8
신당 미래	2	7	9	62
공산당	0	8	8	9
사민당	1	1	2	5
국민신당	1	0	1	2
신당 대지	0	1	1	3
신당 개혁	0	0	0	0
신당 일본	0	0	0	1
제파	0	0	0	0
무소속	5	0	5	9
합계	300	180	480	479

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보수인 자민당과 중도와 혁신으로 갈려진 야당 간 보·혁 백중 시대가 전개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혁의 경쟁 구조는 1990년대에 근본적인 재편을 경험하면서 혁신이 약화되고 중도 정당이 보수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¹⁷ 급기야 2012년에 이르러서는 혁신 정당이 고립화되면서 보수 정당들이 총체적으로 강화되는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정당 간 경쟁의 구도에서 일본 정치가 보수화되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¹⁸

17 박철회는 한 저서에서 일본의 보·혁 대결 구조가 점차 보·혁 백중세를 거쳐 보수 세력 간의 경쟁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박철회, 『자민당정권과 전후체제의 변용』, 서울: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

18 다만 정당 간 경쟁 구도는 향후에도 재편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중도 세력의 복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열려 있는 경쟁 공간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정당 내부 역학(intra-party dynamics)에서 본 보수화:

정당 내 리버럴의 약화

일본 정치가 보수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주요 정당 내부의 역학 관계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자민당 내부에는 후쿠다(福田)파와 나카소네(中曾根)파로 대표되는 보수 우파(保守右派)와 오히라(大平)파와 미키(三木)파로 대표되는 보수 리버럴(保守リベラル)이 존재해 왔고, 최대 파벌인 다나카(田中)파가 중도 보수(中道保守)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게 통설이다.¹⁹ 다나카파가 오랜 세월 에 걸쳐 오히라파와 손을 잡고 정국을 리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955년 체제 하에서 자민당 내부의 중심축은 중도 보수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후쿠다 정권을 제외하곤 거의 예외 없이 다나카파가 지원하는 파벌에서 자민당 총재가 나왔다. 다나카 수상 본인이 수상이 된 이후 미키를 수상으로 만들었고 그를 다시 끌어 내린 것도 다나카파였다. 후쿠다파의 반격에 몰려 잠시 다나카파의 우세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다나카파와 오히라파가 연합하여 다시 오히라가 수상이 되었고, 오히라가 사망하자 같은 파벌 후임인 스즈키(鈴木)가 수상이 되었다. 그 후 다나카파의 도움을 받아 수상이 된 나카소네(中曾根)는 총주류파 체제를 표방하면서 다나카파의 후신인 다케시타(竹下)파와의 협력을 통해 정권을 유지했다.²⁰ 바꿔 말하자면, 다나카파는 자민당 정권의 핵심 축(linchpin)이었다. 이념적으로 보수 우파였던 후쿠다와 나카소네의 정책 기조도 다나카파가 설정한 이념적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19 자민당 내부 파벌의 이와 같은 분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 바람. 若宮啓文, 『戦後保守のアジア観』, 東京: 朝日新聞社, 1995. 대체로 보수 우파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면서 역사 문제에 관해 자존(自尊)을 강조하는 강성을 띠며, 보수 리버럴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온존시킬 것을 주장하면서도 역사 문제에 있어서의 자성(自省)을 촉구한다. 중도 보수는 이들 간의 중도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보수 우파와 보수 리버럴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접촉점인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다르다.

20 자민당 내부의 파벌 역학과 수상의 탄생에 대해서는 박철희의 『자민당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제3장을 참고 바람.

그러나 1990년대 초중반 다케시타(竹下)파가 자기 분열하여 오자와(小沢) 그룹이 탈당하고 오부치(小淵)와 가지야마(梶山)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다나카파의 절대적 영향력은 수그러들었고, 오히라(大平)파의 후신인 미야자와(宮沢)파 내부도 가토(加藤)와 고노(河野)의 대립으로 인해 고노 그룹이 별개의 파벌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야자와파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그나마 미야자와파 분열 이전에 미야자와 수상의 주도 하에 리버럴한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 고노 담화(河野談話) 등이 발표된 것은 보수 리버럴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보여준 것이었다. 가토가 정조회장, 간사장 등 주요 당직을 역임하면서 사회당과의 연립을 이끈 것도 보수 리버럴의 영향력을 온존시킬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였다. 가토는 자민당과 사회당의 연립 과정을 리드하면서 다케시타파의 분열을 활용하여 하시모토(橋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YKK로 불리는 야마자키(山崎), 가토(加藤), 고이즈미(小泉)라는 각 파벌 내 차기 주자들의 결속을 유지함으로써 보수 리버럴의 동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하시모토의 퇴진, 사회당의 몰락과 더불어 보수 리버럴의 입지는 약해졌고, 오부치가 등장하면서부터 공명당과 연합을 추진하는 한편, 오부치가 급사하자 모리(森)가 정권을 인수하면서 보수 우파의 힘이 강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자민당과 사회당의 연합에 의해 구축된 정치적으로 리버럴한 모멘텀의 표면화가 자민당 내부에서 보수 우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은 역설적이다.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村山) 수상이 추진한 ‘종전 50주년 부전결의’와 ‘무라야마 담화’(村山談話), ‘아시아여성기금’(アジア女性基金) 등은 자민당 내 젊은 보수 우파 그룹을 결속시켜 아베 신조(安倍晋三)를 중심으로 한 강경 보수 우파(新保守右派)의 등장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의 주장은 기존의 보수 우파의 주장보다 더욱 우파적 성향이 강한 내용이었다.

2000년 고이즈미의 등장 이후 이들 강경 보수 우파들의 확산이 이루어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후쿠다파의 후계자인 모리(森)로부터 시작된 구(舊) 후쿠다파의 전면 등장 및 균형추였던 구(舊) 다케시타파의 몰락은 자민당 내부에서 보수 우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기회로 작용했다. 모리(森)

에 이어 고이즈미(小泉), 아베(安倍), 후쿠다(福田)로 이어지는 모리파의 수상직 독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²¹ 아베의 재등장도 자민당 내 역학 구도 하에서 보수 우파의 영향력이 견재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파벌 소속을 확실히 하지 않고 있는 많은 신진 의원들도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 모리파의 후신인 현재의 마치무라(町村)파가 중심이 되는 자민당 내부 경영 체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2012년 12월의 총선과 2013년 7월의 참의원 선거를 통해 마치무라파의 독주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이들 파벌 소속 의원 전체가 보수 우파적 성향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베가 내세우는 정책들을 당내에서 주도적으로 지지하는 그룹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수 우파의 공세 시대라 할 수 있다.

자민당 내부가 점차 보수적인 성향의 세력이 재결집할 무렵인 1996년 결성되기 시작한 정당이 민주당이었다. 이들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적 모델을 염두에 둔 중도 정당의 길을 걷고자 출범했다. 사실상 자민당 탈당파

〈표 2〉 2012, 2013년 선거 후 각 파벌별 의석 수

파벌	대표	중의원	참의원	합계
세와카이(清和会)	마치무라(町村)	52	24	76
헤이세이켄(平成研)	누카가(額賀)	28	18	46
고치카이(宏池会)	기시다(岸田)	30	8	38
이코카이(為公会)	아소(麻生)	25	4	29
시스이카이(志帥会)	니카이(二階)	21	4	25
긴미라이(近未来)	이시하라(石原)	11	0	11
반초세이켄(番町政研)	오시마(大島)	7	3	10
무소속		15	21	36

* 자료 출처: 일본정경신문사 발행 『國會便覧』 132版, 2013년, 414~417쪽.

21 후쿠다파는 고이즈미파, 모리파, 마치무라파로 계승되었다.

들과 사회당, 민사당 세력이 중심이 된 정당에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²²

하지만 2000년 총선과 2003년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 깃발 아래 당선된 신진 의원들은 예전에 비해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의원들이 상당수 늘어났고, 그 중에서도 마쓰시타 정경숙(松下政経塾) 출신들이 많이 포진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2003년 오자와가 이끄는 자유당과 합당을 통해 민주당이 재건되면서 민주당 내 보수 세력의 입김은 더욱 세졌다. 하토야마(鳩山)가 이끄는 당내 보수와 간(菅)이 이끄는 당내 리버럴의 균형 상태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오자와(小沢)가 새로운 균형추로 등장했다.

하토야마, 간, 오자와 간의 3자 연합을 통한 당의 운영은 2007년 참의원 선거 승리와 2009년 중의원 선거 승리로 자민당을 밀어내고 정권을 차지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이후 민주당은 다시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어 경쟁과 대립을 하면서 그 와중에 결국 오자와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탈당에까지 이르는 상태에 이르렀다.²³ 외견상으로는 하토야마와 오자와가 이끄는 보수 세력의 퇴진과 간을 중심으로 한 리버럴의 승리로 보였지만, 사실상 경쟁의 승리자는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의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노다(野田)의 승리였다. 젊은 의원들에 의한 기성세대의 축출이었고, 당은 전보다 훨씬 보수화가 가속화되었다.

2012년 총선에서 당이 궤멸되는 상태에까지 이른 민주당에서 더욱 전면에 진출한 것은 당내 보수파의 강세였다. 리버럴한 의원들은 대부분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당선된 의원들은 상당수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토야마는 은퇴했고, 간은 비례대표로 간신히 부활했으며, 당내 젊은 의원들의 신망을 받는 센고쿠(仙谷)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22 일본 민주당 출범기 당의 중도적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는 박철희, 「일본 야당 세력의 재편과 정당 경쟁 체제」, 『한국정치학회보』 40집 5호, 2006, 279~299쪽.

23 일본 민주당 내부의 세력 대결과 오자와의 탈당에 관한 연구로는 심미정, "From the Intra-Party Conflicts to Party-Switching: A Research on Ozawa's Defection from the DPJ,"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2.

오자와는 탈당했다. 따라서 당내에 남은 세력은 주로 젊은 보수파 의원들이었다.²⁴

4. 국회의원들의 모임에 나타난 보수화:

보수 우파 의원 연맹의 활성화

정당 간 경쟁 체제에서의 보수 정당의 약진, 주요 정당 내 보수 세력의 강화와 더불어 일본 정치 세력의 보수화를 보여주는 것이 보수 우파 국회의원 연맹의 활성화이다. 일본 정치 세력 내에서 평화국가의 논리를 수용하는 세력은 소수로 전락해 버렸고, 글로벌한 통상국가로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우선하는 세력들도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주류를 이루는 정치 세력이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자는 세력이다. 보통국가의 논리에서 더 나아가 일본을 자주국가화해야 한다는 우익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는 정치가들도 대두하고 있다.²⁵ 보통국가론자들과 자주국가론자들은 1955년 체제 하에서 나타나지 않았거나 소수의 침묵하는 정치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일본 정계가 보수화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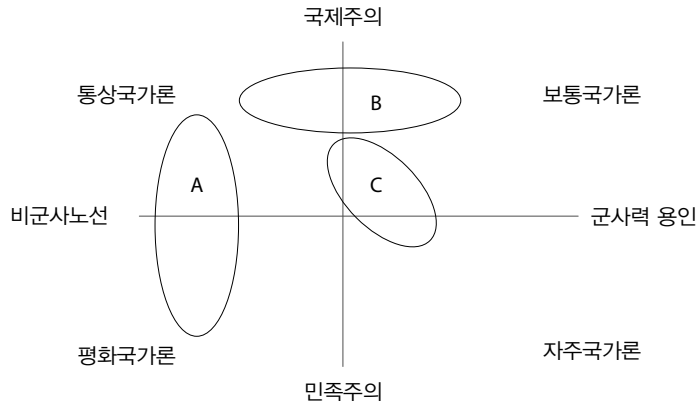
1955년 체제 하에서 평화국가론자들과 통상국가론자들이 대결했다면(A축), 1990년대부터는 통상국가론자들과 보통국가론자들의 경쟁이 전면에 부상했고(B축), 2000년대 고이즈미 시대 이후 보통국가화 노선은 정착되고 일부 자주국가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C축).²⁶ 민주당의 집권으로 보수

24 현재 민주당 당내는 노다(野田), 마에하라(前原), 겐바(玄葉), 후루카와(古川), 호소노(細野), 나가시마(長島) 등 젊은 보수계 의원이 차기 주자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25 일본의 외교안보 노선을 네 가지 노선으로 분류한 시도에 대해서는 李明贊, 『日本の外交安全保障政策における, 四つの路線』, 慶應義塾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博士論文, 2005; Richard Samuels, *Securing Jap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박철희, 「일본 보수 세력의 국가론과 동아시아 인식」, 박태호·박철희 엮음, 『동아시아의 로컬리즘, 내셔널리즘, 리저널리즘』, 서울: 인간사랑, 2007, 169~196쪽.

26 이러한 경향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감지되던 현상이었다. 박철희, 「고이즈미정권의 대외정책 결정 논리와 한국의 외교 대응전략」,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2. 11.

화의 기치가 약화되는 듯했으나,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재집권하면서 보수화의 흐름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보통국가화의 논리가 중심을 이루면서도 자주국가적 노선이 혼재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변화하는 일본 정치의 현주소다.



1955년 체제에서는 보수 세력이 개헌을 주장하고, 혁신 세력이 호헌을 주장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었다. 일본사회당이 기본적으로 개헌 지지 세력으로 인식되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헌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의 인식은 점차 초당적인 합의로 옮겨가고 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 보수 담론이 확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2년 12월 일본의 총선거가 치러진 후 이루어진 중의원 당선자 조사에 의하면, 당선자 중 72%에 달하는 국회의원이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또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도 79%가 찬성하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²⁸ 일본의 평화주의의 상징이던 평화헌법의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3분의 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아베가 중군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표시한 무라야마 담화

27 『毎日新聞』, 2012년 12월 18일.

28 『毎日新聞』, 2012년 12월 18일.

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의원들은 사회당과 민주당 일부 인사를 포함한 소수에 불과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보수 우파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초당적 성격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1955년 체제 하에서는 정당의 틀 내에서 활동하던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틀을 넘어서서 초당파적인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대체로 자민당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상실했다가 사회당과 연합하면서 여당의 지위를 되찾았지만, 사회당 중심의 좌파에 대해 비판적인 자민당 내 보수 우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움직임이다. 야당의원들 역시 자민당을 탈당한 세력들 내지 자민당 탈당 세력과 정당 활동을 함께 하면서 정당의 틀보다는 이념적으로 동조하는 세력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초당파적인 움직임에 동참한 결과였다. 일본 정계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정당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정치 세력과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보수 우파의 이념적 성향을 전면에 내세운 국회의원 모임은 오히려 활성화되었다.

그 대표적인 모임이 ‘모두가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국회의원의 모임’(みんな靖国神社に参拝する国会議員の会)이다. 이 모임은 여당이던 자민당과 야당이던 신진당으로 나뉘어 각각 구성되었던 국회의원 모임이었지만 1997년에 하나의 모임으로 합쳐졌다. 이들은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평화주의 일변도의 정치 이념에 반대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야스쿠니 의원 연맹을 중심으로 2013년 야스쿠니 신사 예대제 당시 4명의 각료를 포함한 169명의 의원이 참배했고, 10월 예대제에 다시 159명의 의원이 참배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모임의 회장은 오쓰지(尾辻) 의원이 맡고 있지만, 아베 총리 본인을 포함하여 아베 내각의 우파 멤버인 이나다(稲田), 아마리(甘利), 신도(新藤) 등과 자민당 정조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다카이치(高市)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마쓰바라(松原), 하라구치(原口), 류(苮) 등이 소속되어 있다.

보수 우파 의원 연맹으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초당파적 모임이 ‘일본회

의 국회의원 간담회'(日本会議国会議員懇談会)이다. 이 모임은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합쳐져서 1997년 5월 29일에 결성된 모임이다. 보수적인 풀뿌리 사회운동 단체인 '일본회의'(日本会議)의 지지를 받는 의원들의 연맹 성격을 가지는 이 의원 연맹은 주로 황실 존중 운동, 헌법 개정, 교육 정상화, 영토 보호, 야스쿠니 참배 장려, 외국인 참정권 반대 등 보수 우파의 어젠다들을 추진하는 정치적 모체가 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여야를 망라하여 252명이 소속되어 있다. 이 모임은 일본유신회 소속인 히라누마(平沼赳夫) 의원을 회장으로 하면서 총리인 아베(安倍晋三)와 아베 내각의 멤버인 후루야(古屋圭司)가 부회장으로 있으며, 문부상인 시모무라(下村博文)는 간사장을 맡고 있다. 부총리인 아소(麻生太郎)는 이 의원 연맹에서 특별 고문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

2004년에는 중국 활동가들의 센카쿠 열도 상륙 사건을 계기로 자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 60여 명이 모여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日本の領土を守るために行動する議員連盟)이라는 초당파적인 의원 연맹을 구상하기도 했다. 히라누마(平沼) 의원을 최고 고문으로 하고, 아마타니(山谷) 의원을 회장, 하라구치(原口) 의원을 부회장으로 하며, 마쓰바라(松原) 의원이 사무국장, 와타나베(渡辺周) 의원이 간사를 맡는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을 이루는 점이 주목된다. 2012년 도쿄에서 처음 열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영토 의원 연맹이 주도했다.

2007년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위안부 문제와 난징 사건의 진실을 검증하는 모임'(慰安婦問題と南京事件の真実を検証する会)은 와타나베, 나가시마(長島), 마쓰바라 등 민주당 내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이었으나 지금은 자민당, 유신회, 생활당 의원들도 참가하고 있다.

자민당 내의 대표적인 보수 우파 의원 연맹은 1993년 조직된 '역사검토 위원회'(歴史検討委員会)이다. 자민당 내에 존재하던 야스쿠니 관련 세 가지 협의회, 즉 '모두가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국회의원의 모임'(みんなで靖国神社に参拝する国会議員の会), '유가족 의원 협의회'(遺家族議員協議会), 그리고 '영령에 답하는 의원 협의회'(英霊にこたえる議員協議会)가 합쳐져서 1993년 8월 23

일 결성된 이 모임은, 그해 8월 10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호소카와 총리가 “그 전쟁은 침략전쟁이었으며, 잘못된 전쟁이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학사관이 횡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역사의 새로운 이식을 촉구하며 결성된 보수 우파의 의원연맹이었다.²⁹ 당시 이 의원연맹은 야마나카(山中) 의원을 중심으로 105명이 구성했으며, 20회의 연구모임을 가진 후 1995년 8월 15일에 『대동아전쟁 총괄』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들은 1995년 8월 무라야마 총리가 추진한 ‘종전 50주년 부전결의’에 대한 반대의 선봉에 섰다.

비슷한 시기인 1997년 2월 자민당 내 당선 4회 이하의 신보수와 의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의원 연맹이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이다. 나카가와(中川昭一)를 회장으로 하고, 아베(安倍晋三)가 사무국장을 맡았으며 시모무라, 야마모토(山本一太) 등 아베의 지지 세력이 중심이 된 모임이었다. 이 모임은 중군 위안부와 난징 대학살과 관련된 교과서 기술에 대해 재검토해 나갈 것을 대내외에 표명한 역사 교과서 의원 연맹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아베 의원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파적 어젠다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의원 연맹의 결성은 이어졌다. 아베 의원이 총리가 되기 직전인 2006년 4월 결성된 ‘올바른 일본을 만드는 모임’(正しい日本を創る会)은 혁신과 진보가 아닌 ‘건전한 보수’의 육성을 목표로 히라누마(平沼) 의원을 대표로 하고, 후루야(古屋) 의원이 사무국장을 맡았으며, 시모무라, 이나다(稲田) 의원 등이 주로 활동하던 의원 연맹이었다. 이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은 자주헌법 제정, 교육기본법 조기 개정,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지지, 황실 전범의 안일한 개정 반대, 납치 문제 해결 없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반대, 인권보호법안 정부안 반대, 부부 별성제 반대, 구조 개혁 찬성, 외국인 참정권 부여 반대 등 우파적인 어젠다 추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29 박철희, 「일본 보수정치 세력의 동아시아를 둘러싼 갈등」, 『일본연구논총』 33호, 2011, 176쪽.

〈표 3〉 보수의원 연맹 리스트

숫자	설립 시기	모임 명칭	설립 목적 및 특징
1	1985.10.25.	교과서문제를 생각하는 의원 연맹 (教科書問題を考える議員連盟)	“사회나 국어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나 전통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잃고 있다”며 현 교과서를 부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는 자민당 의원 연맹
2	1990.04.13.	천황 폐하 즉위 봉축 국회의원 연맹(天皇陛下御即位奉祝国会議員連盟)	1990년 1월 있을 일왕 즉위식의 예와 대상제를 축하하기 위해 설립
3	1993.08.23.	역사검토위원회(歴史検討委員会)	태평양전쟁 검토, 호소카와 수상의 “침략전쟁” 발언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는 자민당 의원 연맹
4	1995.01.31.	종전 50주년 국회의원 연맹(終戦50周年国会議員連盟)	전후 50주년을 맞아 ‘반성’과 ‘사과’가 포함된 부전결의에 반대하는 자민당 의원 연맹
5	1995.02.21.	올바른 역사를 전하는 국회의원 연맹(正しい歴史を伝える国会議員連盟)	전후 50주년을 맞아 ‘반성’과 ‘사과’가 포함된 부전결의에 반대하는 신진당 의원 연맹
6	1996.06.04.	밝은 일본 국회의원 연맹(明るい日本国会議員連盟)	역사 교육 재검토와 중학교 역사 교과서 위안부 기술 반대
7	1997.02.27.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	역사 교육의 이상적인 모습과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과 관련된 역사 교과서 기술 재검토 등을 목적으로 5선 이하의 젊은 의원들이 결성
8	1997.04.02.	모두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みんなで靖国神社に参拝する国会議員の会)	자민당과 신진당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의원 연맹이 통합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초당파 의원 연맹
9	1997.04.15.	북한 납치 의혹 일본인 구출 의원 연맹(北朝鮮拉致疑惑日本人救援議員連盟)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의혹을 밝히기 위한 초당파 의원 연맹
10	1997.05.22.	헌법조사위원회 설치 추진 의원연맹(憲法制度調査委員会設置推進議員連盟)	국회에서 헌법 문제를 조사, 검토하는 상임위원회 설치를 목적으로 만든 초당파 의원 연맹
11	2000.09.21.	외국인 참정권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모임(外国人参政権の慎重な取り扱いを要求する国会議員の会)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에 반대하는 자민당 의원 모임

〈표 3〉 보수의원 연맹 리스트 (계속)

숫자	설립 시기	모임 명칭	설립 목적 및 특징
12	2001.06.27.	역사 교과서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歴史教科書問題を考える会)	역사 교과서 문제를 생각하는 초당파 의원 연맹. 교과서 검정과 채택의 건전화를 요구
13	2002.04.25.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조기에 구출하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 (北朝鮮に拉致された日本人を早期に救出する為に行動する議員連盟)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이 결성된 초당파 의원 연맹
14	2002.10.03.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 현의회 의원 연맹(竹島領土権確立県議会議員連盟)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마네현의회에 설치된 의원 연맹
15	2004.02.25.	교육기본법 촉진 위원회(教育基本法改正促進委員会)	교육기본법 개정을 위한 초당파 의원 연맹
16	2004.04.07.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日本の領土を守るため行動する議員連盟)	중국인 활동가에 의한 센카쿠 열도 불법 상륙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초당파 의원 연맹
17	2005.06.25.	평화를 바라며 진정한 국익을 생각해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하는 젊은 국회의원 모임(平和を願い真の国益を考え靖国参拝を支持する若手国会議員の会)	자민당 내 야스쿠니 참배 지속론 등에 반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하는 젊은 의원 모임
18	2006.04.19.	올바른 일본을 만드는 모임(正しい日本を創る会)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의 장래에 대해 책임을 가지며, 국가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진정한 보수 정치를 확립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국회의원 모임
19	2007.03.10.	위안부 문제와 난징 사건의 진실을 검증하는 모임(慰安婦問題と南京事件の真実を検証する会)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문제를 계기로 위안부 문제를 검토하는 민주당 의원 연맹
20	2007.04.05.	신헌법 제정 의원 동맹(新憲法制定議員同盟)	개헌을 목표로 한 의원 연맹
21	2007.05.17.	가치관 외교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価値観外交を推進する議員の会)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가치 외교’를 지지하기 위한 의원 연맹
22	2007.06.13.	중국 항일기념관에서 부당한 사진 철거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모임(中国の抗日記念館から不当な写真の撤去を求める国会議員の会)	중국의 애국 운동 거점으로 불리는 항일기념관의 전시 내용을 조사하고 사실 오인으로 여겨지는 사진 등의 조속한 철거를 요구하는 의원 연맹
23	2007.07.13.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慰安婦問題の歴史的眞実を求める会)	미 하원의 위안부 문제로 아베 총리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 가결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및 유식자 모임

〈표 3〉 보수의원 연맹 리스트 (계속)

숫자	설립 시기	모임 명칭	설립 목적 및 특징
24	2008.05.22.	대북 외교를 신중히 진행하는 모임 (北朝鮮外交を慎重に進める会)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추진하는 의원 연맹에 반대해 결성한 초당파 의원 연맹
25	2008.10.16.	천황 폐하 즉위 20년 봉축 국회의원 연맹(天皇陛下御即位二十年奉祝国会議員連盟)	천황 즉위 20년을 축하하기 위한 의원 연맹
26	2010.10.15.	국가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国家主権と国益を守るために行動する議員連盟)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선박 충돌 사건을 계기로 설립된 의원 연맹
27	2011.06.07.	헌법 96조 개정을 추구하는 의원 연맹(憲法96条改正を目指す議員連盟)	헌법 개정 과정 가운데 96조 개정을 선결 과제로 삼는 초당파 의원 연맹

출처: 구유진,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 보수의원 연맹 연구」, 국민대학교 일본연구 프로젝트 출판 예정 논문 (2014년), 19~20쪽.

이와 같은 보수 우파 의원 연맹 활동의 활성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보수 우파 의원 연맹이 왕성하게 결성되기 시작한 시기가 대체로 1995~97년을 즈음한 시기였으며, 고이즈미와 아베가 총리가 된 2000~07년을 즈음하여 다시 활동이 왕성해진다는 점이다. 1992년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1993년 호소카와 총리의 침략전쟁 인정 발언, 그리고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종전 50주년 부전결의와 아시아여성기금의 추진 등 리버럴한 정치적 국면에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보수 우파 의원들의 움직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즉, 보수 우파 의원 연맹은 혁신 세력의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며, 혁신 세력에 대한 보수 우파의 반동적 움직임(backlash)을 숨김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 우파 의원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혁신 세력에 대한 안티테제를 구성하려는 보수 우파의 집단적 노력의 결과였다.

둘째, 1990년대 중반부터 자민당 의원들에 한정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초당파적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

다. 정계 재편이 활발했던 시대적 배경도 있지만 냉전이 끝난 후 일본 보수파 국회의원들이 당파를 초월해서 공통적인 이념적 성향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초당파 보수 우파 의원 연맹의 중심 인물들이 거의 예외 없이 모든 모임에 중복된다는 사실은 보수 우파의 어젠다를 추진하는 핵심 엘리트(core elite)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히라누마(平沼) 의원과 아베(安倍) 의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루야(古屋), 시모무라(下村), 아소(麻生), 아마타니(山谷), 다카이치(高市), 이나다(稲田), 신도(新藤) 등이 거의 모든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와타나베(渡辺周), 마쓰바라(松原), 하라구치(原口) 등이 주요한 멤버로 참가하고 있다. 초당파적인 의원 연맹의 결성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어젠다의 의원 연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자민당 내 보수 우파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셋째, 보수 우파 의원 연맹들이 명칭이나 구성 시기와 무관하게 거의 공통된 어젠다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보수 우파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침략전쟁을 부정하거나 식민지 당시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등 전쟁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부인하는 입장에 서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위안부나 난징 학살 등에 대한 교과서 기술에 반대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지지하는 점에 일관성이 있다. 또한 자학사관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일본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일본 역사를 가르치고 싶어 하며, 황실을 존중하는 입장을 내세운다. 영토 주권을 보호하고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점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낸다. 궁극적으로 일본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나타난다.

넷째, 보수 우파의 핵심 쟁점들은 이전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혁신 세력이 주장해 오던 평화헌법 수호,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 평화주의적 입장에 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 아시아 외교의 강화, 자위대 활동 강화 반대 등과 정반대편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혁신 세력이 주장하는 이슈들의 대척점에 서서 혁신 세력의 약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특히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문제, 영토

문제 등이 모두 일본의 아시아 외교와 직결되는 문제들이며, 중국과 한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된 이슈들이라는 점에서 반(反)아시아 외교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쟁점들이라는 것이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보수 세력들 사이에 동아시아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³⁰

이와 같은 보수 우파 의원 연맹의 활성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정계 내, 특히 자민당 내부의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수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5. 일본 정치 보수화의 평가

정당 간 경쟁 체제에서의 보수 정당의 약진, 정당 내부에서의 혁신 세력의 약화,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보수 우파 의원 연맹의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일본 정치가 보수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2012년 이후 아베 내각의 보수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1990년대 이래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보수화 경향과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정당 간 경쟁의 공간에서 혁신 내지 좌파 정당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정치적 존재의 의미감이 약화되고 있다. 반면 우파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등장함으로써 보수 세력을 견인함은 물론 좌파 세력의 결집 및 재등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둘째, 정당 내부의 역학을 보아도 자민당 내부에서 보수 리버럴 세력과 중도 보수 세력은 아주 약화되거나 분열 양상을 보이는 반면, 보수 우파인 마치무라파의 영향력과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노조의 지지를 받는 리버럴들보다는 보수 세력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다. 나아가 국회의원 연맹의 결성 양

30 동아시아를 보는 눈이 일본의 보수 세력, 특히 자민당 내의 핵심적 쟁점의 하나라는 지적은 박철희, 「일본 보수 세력의 동아시아를 둘러싼 갈등」, 159~188쪽.

상을 보아도 보수 우파적 성향을 띠는 의원 연맹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우파의 어젠다가 국회에서 보다 강하게 대표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치가 보수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익 세력이 정치 체제의 중심에 서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본은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 미일동맹의 틀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기 어렵다.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자 일본은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자국의 방어태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익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자주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과는 다른 선택이다. 우익 정치인들은 미국으로부터의 정신적 해방, 헌법이라는 제도의 극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서만 자주적인 선택을 강화할 수 있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보수 정치인과 우익 정치인이 갈라지는 가장 큰 잣대는 미일동맹을 강화하려 하는가, 아니면 미일동맹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선택을 하려 하는가에 있다. 반(反)아시아적 구호를 외치는 보수 정치인은 많지만 반미를 강하게 주장하는 보수 정치인은 드물다. 일본은 아직 미국과의 동맹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이 해체되는 때가 일본의 본격적인 우경화의 시작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 체제에 남아 있는 일본은 보수화할 수는 있어도 우익적 자주적 선택에는 한계가 있다. 보수 우파의 정치인들은 아시아에 대한 어젠다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시아의 눈으로 보면 일본이 더욱 보수화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것이다.

일본은 보수화의 기치를 지속하겠지만, 군국주의적 일본, 전전의 일본으로 회귀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전전 일본에 대한 향수라기보다는 전후 질서 하에서 주변국에 대한 반성과 사죄, 보상을 강요당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일본의 모습이다. 물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궁사관의 고취 강조, 영토 주권의 확립 등 보수 우파들의 정치적 어젠다들을 들여다보면 전전의 일본의 불법적인 행위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엿보인다. 군국주의적 환상이 동아시아의 눈에 투영되

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우파적인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들조차 전전의 일본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적다. 보수 우파의 어젠다는 전후 일본의 관성에 대한 반발과 수정 요구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이를 전면 부정하는 체제로의 이행은 용이하지 않다. 이는 마치 호헌과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자민당 중심의 보수 정치를 비판하고 수정을 가하고자 했던 야당이 대안보다는 견제세력의 영역에 머물렀던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전전을 긍정하는 우익적 사회 세력과 일본의 자존과 주권을 옹호하려는 보수 정치 세력은 구분되어야 한다. 일본 내 우익은 반미적인 이념과 반아시아적인 정서를 동시에 가진 인사들이 많지만, 이는 고립주의, 폐쇄주의 내지 배외주의적 자세로서 국제국가 일본의 현실과는 배치되는 요소가 많다. 따라서 일본의 우익은 증상일 수는 있어도 체제가 되기는 어렵다.

일본의 보수화는 기본적으로 보수의 전면적 승리라기보다는 리버럴의 패배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리버럴의 조직적 결집, 통합적 정치 세력화 및 정치적 어젠다 개발의 실패가 보수 정치 세력의 확장을 가져왔다. 일본의 보수 세력은 혁신 세력이 실패한 영역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정치적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조직적으로, 이념적으로 혁신 세력을 정치의 중심에서 몰아내고자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난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의 조직화와 우파 이념의 확산은 정치적 자기 분열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분산되고, 이념의 영역에서 방어적인 태도만 고수했던 리버럴과 대조적이었다. 리버럴의 조직과 이념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일본의 보수화는 더욱 더 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특집 | 현대 일본의 보수 그리고 우익

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 | 박철희

투고일자: 2013. 12. 23 | 심사완료일자: 2014. 1. 3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일본 아베 내각 출범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의 '총체적인 보수화'를 우려하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우경화, 군국주의화, 군사대국화의 논조가 아베 내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역으로, 일본의 지식인들은 우경화라는 말에 거부감을 보인다. 일본 내에 양심적인 세력이 많다고 호소한다. 한국의 언론에서 논하듯 일본 정치 세력과 사회 전체가 우익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 지식인들의 변명처럼 일본이 원천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현실적이지 않다. 적어도 2012년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래 강화되고 있는 보수화의 움직임과 증상들은 예전의 일본과 다르다.

이 논문은 일본이 삼중의 의미에서 보수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정당 간 역학의 측면에서 혁신 정당은 약화되고 보수 정당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보수와 혁신의 대결이라는 구도는 희석되고, 보수와 보수 내지 보수와 우익의 대결로 집약되는 정치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둘째, 정당 내부의 역학 측면에서도 집권 여당과 주요 정당 내에서 혁신적이고 리버럴한 당내 집단은 약화되고 보수적인 정치 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 일본 정계 내에서 활동적인 의원 연맹 중에서도 리버럴한 모임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보수적이거나 우익적인 성향의 의원 연맹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가 분절화되고 내부적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면, 후자의 경우 복수의 핵심 인물들에 의한 복수의 조직 구축이 나타나고 있으며, 초당적인 성격을 갖추어가고 있다.

주제어: 보수화, 보수리버럴, 보수우파, 중도보수

장기불황, 구조개혁, 생활보수주의 | 이정환

투고일자: 2013. 11. 17 | 심사완료일자: 2013. 12. 5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지난 20여 년간의 장기불황은 일본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전후체제의 구조적 조건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국가 개입 속의 경제 발전과 사회보호 모두를 달성하는 것이 곤란해진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 전후체제의 고용구조와 재분배구조 속에서 선별주의적 포섭 메커니즘이 일본사회의 미시적 이슈로의 몰두와 좁은 단위 내로의 공공성 인식의 성격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후체제에 의한 제도적 유산으로서의 성격을 바탕으로 일본사회는 장기불황의 구조 변동에 대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정치 이슈의 미시화와 폐쇄적 성향

Conservatives and Right-wings in Contemporary Japan

Three-Layered Structure of Japan's Conservative Political Shift

| PARK Cheol Hee

This article claims that Japanese politics reveals more conservative shift than before in three senses. First of all, in the domain of inter-party competition, liberal or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are on the wane while conservative political parties turned more resilient. The advent of Japan Restoration Party attests the case. Second, in the intra-party space, conservative liberals or moderate conservatives have been either divided or weakened while conservative hawks are on the rise. Even within the DPJ, a major opposition party, conservative politicians stand out while progressives have lost their seats. Third, if we analyze Diet members' study groups after the mid-1990s, a number of conservative hawks' meetings have been constantly increasing with bipartisan membership.

• **Keywords:** conservative shift, liberal conservatism, right-wing conservatism, centrist conservatism

Long-Term Recession, Structural Reform, and Livelihood Conservatism

| LEE Jung Hwan

Japan has fallen into the pit of long-term recession for almost two decades, which has dismantled its postwar system of social integrity and political stability. During this period, the system of economic growth and social protection under the state intervention has stopped functioning.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livelihood conservatism, which intensified the inward-oriented nature of political and public spheres, has emerged and been strengthened in Japan because of the long-term recession and structural reforms. The livelihood conservatism, the most prominent response to economic hardship in contemporary Japan, is originated in institutional legacies of postwar political economic system. Rather than voicing exclusive opinions to others, the livelihood conservatism has a tendency to concentrate on introvert issues. However, the livelihood conservatism cannot play the role as the countervailing forces against neo-conservatism or neo-liberalism in contemporary Japan.

• **Keywords:** Long-term Recession, Structural Reform, Livelihood Conservatism, Neo-Liberalism, Neo-Conservatism